**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7~4/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김원수 | 청우당 | 6 | 대승기신론 (전2권) | 마명/성본스님 | 민족사 |
| 2 |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 혜민스님 | 수오서재 | 7 | 가사체 불교경전과 한글세대 불교경전 | 무비스님, 조현춘 | 운주사 |
| 3 |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자현스님 | 조계종출판사 | 8 | 왕생요집 (수행과 구원의 서사) | 겐신/김성순 | 불광출판사 |
| 4 | 잔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 | 덕현스님 | 법화 | 9 | 중용강의 | 남회근/송찬문 | 마하연 |
| 5 | 달라이 라마, 죽음을 말하다 | 제프리 홉킨스/이종복 | 담앤북스 | 10 | 통도사 사찰약수 | 이병인, 이영경 | 조계종출판사 |

# 수행의 숲에서 찾아낸 지혜 '여여'

〈如如〉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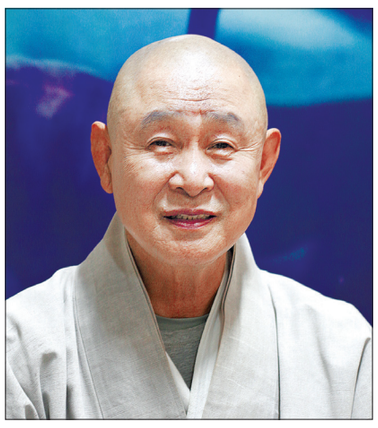
정여 스님 지음/담앤북스 펴냄/1만5천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교에서는 수행공동체를 표현하기 위해 산림(山林), 총림(叢林) 등 숲을 의미하는 '림(林)'을 자주 사용한다. 수행자들이 머무는 처소, 숲속에서 어원은 출발 했겠지만 깊은 의미로는 공동체의 삶 자체를 뜻한다. 올곧게 성장하기 위해 나무들은 가지 치기가 필요하듯 공동체의 삶은 자신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수행의 숲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출가이고, 깨달음을 얻은 후 다시 수행공동체를 찾는 것을 보임(保任)이라 한다. 보림이라고도 쓰는 보임은 보호임지(保護任持)를 줄인 말로 '잘 보호하여 지킨다'는 것이다. 출가부터 생의 마지막 까지 수행자의 숲에서 살아가는 것이 운수납자의 삶이다.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사진 오른쪽〉이 수행의 삶을 묶어 책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을 펼쳐냈다. 70세를 넘어 보임 수행을 떠나 문경 봉암사, 백담사 무문관, 해남 대흥사, 포항 보경사 등에서 안거를 지내고 수행서 얻은 지혜를 따뜻한 언어로 담았다.

스님은 현대인에게 행복의 열쇠로 '여여(如如)'를 제시한다. 지금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하고 여여한 자신의 본성을 보며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가라고 설명한다.



**행복한 마음 해답 제시해**

**전법은 마음자리 알리는 것**

**"여여한 자신의 본성 보라"**

책은 크게 2부로 나누어진다. 제 1장부터 4장까지는 평소 스님이 수행하면서 바라본 '마음'이라는 화두를 아름답고 간결한 문체로 적어 내려갔다. 또한 5장에서는 선방 정진과 무문관 폐관 수행을 마친 이야기와 토굴 생활을 솔직 담백히 풀어냈다. 특히 안거철 선방 생활이 적힌 대목에선 일상서 얻는 여여한 삶의 행복을 엿볼 수 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도 들어야지/밤이면 풀벌레 울음소리를 듣고 목탁새 목탁 소리도 들어야지/순수하고 꾸밈없는 자연의 소리는 그대로가 화엄의 설법이네/문은 잠기어 나갈 수는 없지만 마음은 새처럼 자유스럽다"처럼 말이다.

집필 기간은 1년으로 생각보다는 짧다. 하지만 출가 후부터 지금까지 얻은 수행의 정수를 담아 쉬운 언어로 해석했다. 책을 출판한 이유는 "여여한 본래의 그 자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 포교"이라며 오직 전법이고 답했다.

스님은 '여여'를 더렵혀지지 않는 하늘과 같다고 설명한다. "하늘은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텅빈 허공입니다. 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쳐도 하늘 바탕은 맑고 깨끗한 하늘입니다. 하늘에 때가 묻지 않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입니다…하늘 바탕은 아무것도 없는 텅비어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깨달은 성인의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정여 스님은 벽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 20여년 동안 포교활동을 펼치며 범어사 주지, 대한불교 교사대학 설립 및 학장,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부산종교인평화포럼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법계위원회 위원, 세상을향기롭게 대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상임대표,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구름 뒤편에 파란 하늘이〉 〈알기 쉬운 금강경〉 〈선의 세계〉 〈마음의 풍경〉 등 다수가 있다.

# 대승경전 교리사상 종합… 수행 체계 총정리



대승기신론 상/하권

마명 지음/정성본 역주 해설

민족사 펴냄/상하 2권 59,500원

〈대승기신론〉은 대승경전의 사상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요약한 책이다. 대승불교의 반야(般若), 공(空)사상과 유심(唯心)의 실천수행 등 제불(諸佛, 모든 부처와 여래)의 다양한 방편법문과 인연법문, 비유법문 등 법문을 진여일심(眞如一心)의 지혜로 종합해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한 대승불교의 실천수행서이다.

중국 당대(唐代)의 선승들은 이 〈대승기신론〉의 법문에 의거해 자유자재로 설법과 선문답을 실행했다. 〈육조단경〉서 5조 홍인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6조 혜능에게 선법을 부촉하고 가사와 발우를 인가증명으로 전하는 것처럼, 조사선은 정법안장을 부촉한 전법과 전등(傳燈)의 역사이다.

또 마조도일과 임제의현, 동산양개 등 중국 조사선의 선승들은 정법의 안목으로 향상의 발심수행을 '살인도'라고 표현했고, 향하의 방행을 활인검이라는 선어로 표현했고, 공(空)과 불공(不空)의 진여법을 빈주(賓主), 정편(正偏), 체용(體用) 등 다양한 선어의 방편법문을 개발했다.

또한 선승들은 〈노자〉나 〈장자〉에서 설하는 무위자연, 무심, 도법자연 등의 언어나, 유교경전에서 설한 다양한 역사의 고사나 언어를 진여법의 논리로 응용해 독자적 선어(禪語)의 방편법문으로 선의 종지(宗旨)를 설했다. 따라서 선승의 방편법문을 선어, 선기어,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선승들의 법어집인 선어록은 중국의 문학사에서 새로운 장르(선어록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대승기신론서 말하는 진여법은 마치 음악의 악보(樂譜)와 비슷하다. 음악의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악기로도 코드(chord)에 맞는 연주로 화음(和音)을 이룬다. 그러나 코드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은 불협화음(不協和音)이 된다.

제불여래가 진여의 지혜로 여시(如是) 설법(開示)하는 방편법문을 참선수행자가 여법하게 청법(聽法)하고 수행해야 제불 여래의 지혜를 체득할 수가 있다. 참선수행은 다름 아닌 경전과 어록에서 설한 방편법문을 여법하게 참구하는 간경(看經), 간화(看話)의 공부라고 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은 진공묘유의 법문과 아공, 법공(法空)을 이루는 유심의 실천사상과 진여법의 지혜로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공덕행을 회향하는 보살도의 사상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종교와 철학사상을 주

**성본 스님의 뛰어난 해설 돋보여**

**모든 용어의 출전 자세히 밝혀**

장한 동서양의 고전에서, 절대 평등의 진여법을 깨달아 평안한 안신입명(安身立命)의 삶과 유희삼매의 법락을 이루는 수행법을 설한 법문은 오직 대승불교 경전과 그리고 〈대승기신론〉에서 논리적인 수행체계로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대승불법을 실천철학으로 체계 있게 정리한 〈대승기신론〉은 참선수행자가 철저하게 공부해야 할 필수적인 지침서다. 진여법의 대의를 깨달아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 여법하게 참선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선은 마음 밖에서 부처(佛)나 신(神), 해탈, 열반도 구하지 않고, 외부의 힘에도 의존하지 않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무의도인(無依道人)이 진여본심의 지혜로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를 건립하는 구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성본 스님이 역주 해설을 한 이 책은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성본 역주 해설의 특징, 혹은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널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승기신론은 '한자로 이루어진 원문', 한문 원전 '만 가지고는 그 뜻을 전달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한문 원전의 공통점이지만 특히 대승기신론은 더욱더 하다. 한 예로 노자도덕경을 원문 그대로만 해석하면 그 번역은 의미 불통이 된다. 의역을 하든지, 아니면 역자가 해설을 붙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성본 스님은 한문 위주의 번역이나 직역 등 한자 중심, 한자 독해에 억매인 번역을 하지 않고 뜻 중심, 내용 중심, 의미 중심의 번역을 했다는 점이다. 즉 의역(意譯)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당한 의역이 아니고 의미가 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의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성본 역주 해설의 특징은 ' 뛰어난 해설'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은 대승경전의 교리와 사상을 종합하여 대승불교의 수행체계를 총 정리한 책이다. 단순한 정리가 아니고 대승의 수행방법을 확립시킨 책이다. 따라서 대승기신론에서 어떻게 각 대승경전의 사상적, 교리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행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또한 텍스트 풀이나 해설에 한정하지 않고 대승불교, 대승경전, 논서, 그리고 중국선, 선어록 등 불교사상 전체와 관련하여 폭넓게 해설했다

셋째. 정성본 역주 해설은 〈대승기신론〉은, 대승기신론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의 출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 대승경전의 사상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승기신론에 등장하는 용어는 대승경전에 나오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용어는 개념을 동반하고 있다. 각 용어의 출전과 각 용어의 개념 등을 밝힌 점이 특징이다. 추가로 일러두기 (4)에서 밝힌 것과 같이, 본문 속의 제목 끝과 각 목차 끝에 동그라미 속 숫자(예; ① ②)를 삽입한 것은 역주해설자가 〈대승기신론〉 원문을 내용별로 구분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붙인 것이다.

김주일 기자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 · 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